

# 강원도 관광자원 개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 형 우<sup>1)</sup>

## 목 차

- I. 서 론
    - 1. 연구의 목적
    -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II. 강원도 관광의 이론적 고찰
    - 1. 강원도 관광 산업의 실태
      - 1) 관광산업의 현황
      - 2) 관광객의 추이
    - 2. 강원도 관광의 권역별 분류
      - 1) 춘천관광권
      - 2) 치악산관광권
      - 3) 설악산관광권
      - 4) 강릉대백관광권
  - III. 강원도 관광자원 현황과 개발의 문제점
    - 1. 강원도 관광자원의 현황
      - 1) 자연관광자원
      - 2) 인문관광자원
    - 2. 강원도 관광자원 개발의 문제점
      - 1) 관광객 유치의 불안전성
      - 2) 연계성미비
      - 3) 환경보존과 개발의 마찰
      - 4) 상품성의 낮은 가치
      - 5) 홍보 및 지역성의 부족
      - 6) 자원활용 노력의 부족
  - IV. 강원도 관광자원 개발의 개선 방안
    - 1. 개선을 위한 기본 방안
      - 1) 서비스향상을 위한 노력
      - 2) 주요도시에 홍보팀의 파견
      - 3) 항공교통의 국제화
    - 2. 상품성제고를 위한 방안
      - 1) 관광코스의 권역별 상품화
      - 2) 지역축제의 관광상품화
      - 3) 향토음식의 관광상품화
  - V. 결 론
- 참고서적  
ABSTRACT

1) 한림정보산업대학 전통조리과 교수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오늘날 세계의 흐름은 경제 전쟁이라고 이야기할수 있을 만큼, 대륙간 나라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의 시대에 우리는 IMF라는 단어가 일상화의 언어가 되어 버렸을 정도로 어려움속에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각종 제조업의 시설 가동율이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달리고, 고금리, 고환율에 기업은 부도 한파에 직면하고, 근로자들은 구조조정의 회오리속에 직장잃은 실업자가 되어 길거리로 내몰려 방황하고 있다.

국민소득이 1만불이 되었다고 가슴 뿌듯해하며 이젠 선진국 대열에 합류해야 한다며 OECD에 서둘러 가입 하던 발 빠른 행보가 이젠 아득한 옛 추억인듯 현실과는 동떨어진 괴리감으로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1500억불이 넘는 외채를 갖고 있으며 적극적인 외화유치와 더 나아가 무역 전장에서 경쟁하여 외화를 열심히 벌어들이는 것만이 살길임을 인지해야만 한다. 외화벌이에 절박한 이 시절에 자동차를 만들어 수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로 관광객들을 불러 들여 관광수입을 올리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원자재 수입 등의 부담이 없는 관광수입은 우리가 직면한 IMF시대에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할 주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이제까지의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관광자원을 발굴, 보존하고 개발을 위한 투자를 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한다.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좋은 이미지로 관광을 하고 돌아간다면 이는 곧 또 다른 투자를 불러 일으키고 수출을 활성화시킬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외화획득을 위한 중요한 역할 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휴식하며 재충전하여 도약할 수 있는 활력의 장소로서 관광지의 개발과 보존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1)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원도 관광 및 강원도 관광자원의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 문헌연구 및 자료조사를 통한 기술적 연구를 하였으며,

둘째, 강원도 관광권의 분류 및 현황조사를 위해 기관 및 단체의 정기간행물 및 연구보고서 등을 이용하여 제2차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강원도 관광자원 개발의 개선방안을 도출해 내기 위해 관광홍보 및 선전, 신문 방송보도내용 등을 인용하였다.

## 2)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강원도 관광이 갖는 지역적 특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관광자원과 관광개발의 개선 방안을 대상범위로 삼았다.

내용적 구성은 총 5장으로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방법 및 범위를, 제2장은 강원도 관광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해 보았으며, 제3장은 강원도 관광자원의 현황과 개발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제4장은 강원도 관광자원 개발의 개선을 위한 기본방안과 상품성 제고를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해 보았으며, 제5장은 결론으로 구성하였다.

# II. 강원도 관광의 이론적 고찰

## 1 강원도 관광산업의 실태

### 1) 관광산업의 현황

#### ① 교통

도로는 서울과 원주 강릉 속초 삼척간, 부산과 춘천간, 대구와 춘천간, 광주와 춘천간 고속버스가 운행되며, 서울에서 철원, 춘천 강릉 원주 속초 등 대부분의 지역과 타지역간에도 시외버스가 수시로 운행한다<sup>2)</sup>. 그러나 대부분 강원도 지역이 산악지대이므로 겨울철에는 폭설로 통행이 제한되기도 한다. 평균 도로포장률은 '95년 통계에 의하면 64.6%를 보이고 있어(통계청, 1996:172)전국평균 도로포장률 76.0%에 비하면 다소 낮은 편이다.

강원도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영동 중앙 동해고속도로의 4차선화, 주요국도의 4차선화, 미시령의 동서관통 4차선화, 춘천-하남간 고속도로 건설, 북부고속도로 건설, 동서고속전철 건설을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다.

항공은 서울에서 강릉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매일 5회 운항함, 속초로 대한항공이 하루 7회 운항한다. 부산으로 강릉까지도 매일 1회 운항한다. 양양국제공항 건설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철도는 서울-춘천(92.9km, 1시간 30분 소요), 서울-강릉(412.4km, 7시간 소요), 서울-원주(108.2km, 1시간 50분 소요)간 열차가 운행하며 동해, 묵호, 옥계, 정동진 등을 통과한다. 최근 정동진역은 TV드라마의 배경으로 이용된 뒤 찾는 사람들이 많아져 인기있는 관광지로 부각되고 있다.

선박은 소양댐에서 양구와 인제 그리고 청평사까지 선박이 운항한다. 동해안 항구의 활용을 위하여 속초항과 동해항의 확충도 추진되고 있다.

2) 한국관광공사, 지방관광 활성화 협력방안, 1997. PP 71-72

2) 관광객의 추이

강원도의 연도별 관광객은 아래의 <표2-1>와 같이 감소와 성장이 반복되고 있는데, 1990년 21,846천명에서 1996년 38,305천명으로 약 75%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타 지역과 비교해 볼때 상대적으로 큰폭의 증가이다. 1996년 관광객 수가 소폭 감소(-0.3%) 한것은 전반적인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한 국민소비행태의 변화와 더불어 9월 발생한 무장공비 침투사건 영향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표 2-1> 강원도 관광객 현황

단위: 천명, %

구분 연도	내 국 인		외 국 인		전 체	
	관 광 객	증 감	관 광 객	증 감	관 광 객	증 감
1990	21,742	-	104	-	21,846	-
1991	19,955	-8.2	130	25.0	20,085	-8.0
1992	22,490	12.7	161	23.8	22,651	12.8
1993	22,159	-1.5	142	-11.8	22,299	-1.6
1994	32,451	46.4	293	106.3	32,744	46.8
1995	38,351	18.2	212	-27.6	38,564	17.8
1996	38,106	-0.4	199	-6.1	38,305	-0.3

자료: 강원도청, 97강원통계연감, P295, 논자재작성

① 숙박시설 및 여행업체 관광안내소

숙박시설은 강원도의 '96년도 통계에 의하면 24개 호텔(특2급 2개, 1급 8개, 2급 6개, 3급 8개) 1,857실을 보유하고 있는데, 객실이용율은 46.4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 29개의 일반호텔과 1,293개 여관의 24,374개 객실이 있으며, 객실이용률은 일반호텔(잡) 45%, 일반호텔(을) 33%, 여관(잡) 52%,

여관(을) 46%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인 54%, 52%, 57%, 49%에 비교하면 다소 낮은 편이다.

호텔과 여관이외에 휴양 콘도미니엄은 강릉시에 호산종합콘도, 미조 경포콘도, 속초시에 한국콘도, 레이크빌 영랑리조트콘도, 설악프라자 리조트콘도, 코레스코 설악레저타운, 설악 삼성콘도, 웰컴콘도, 현대 웨미리타운콘도, 사조마을 설악휴양콘도, 설악 동해콘도가 있으며, 홍천군에는 대명홍천콘도, 횡성군의 코레스코 치악산콘도, 현대 성우리조트콘도, 평창군 용평리조트콘도, 대관령콘도, 스카이콘도가 있다. 가족호텔은 동해시에 그린 피아 망상호텔, 고성군에 제일설악하일라벨리콘도, 설악하일라비치콘도, 대명설악휴양콘도, 현대설악휴양콘도, 그레이스콘도, 대명알프스휴양콘도, 일성레저설악콘도, 현대 설악휴양콘도, 그레이스콘도, 대명알프스 휴양콘도,

일성레저설악콘도, 코레스코 삼포리조트콘도가 있다. 국민호텔은 속초이세 설악교육문화회관호텔, 양양군에 오색그린야드호텔이 있다.

강원도의 여행업체는 97년 6월 현재 일반 여행업체가 하나도 없으며, 국외여행업은 69개 업체, 국내여행업은 103개 업체가 있다.

강원도내의 관광안내소는 한국관광개발원의 1997년도 조사에 의하면 30개소로서 79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것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중 가장 많은 수이다. 춘천시 퇴계동에 강원도 관광안내소, 강릉공항과 강릉역, 강릉시외버스 터미널에 강릉시 관광안내소, 속초시 대포동에 속초시 관광안내소가 있다.

## 2 강원도 관광의 권역별 분류

### 1) 춘천 관광권

춘천관광권은 춘천시, 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을 대상으로 하며 총면적은 5,802.83km<sup>2</sup>이다. 춘천권은 춘천, 중도, 팔봉산, 남이섬, 파로호, 청평사 등의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호반과 산악관광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주변 위락시설의 확충을 계속하고 있다.

〈표 2-2〉 춘천관광권의 유형

지역	면적	유형	소재지
합계	40.786	-	-
춘천호반	6.48	산악, 수변휴양형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중도동, 송암동 신매리
구곡폭포	2.423	산악휴양형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청평사	0.175	산악, 수변휴양형	춘천시 북내면 청평리
팔봉산	6.469	산악, 수변휴양형	춘천시 서면 팔봉리
홍천은천	1.458	수변휴양형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고석정	0.794	수변휴양형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광덕계곡	0.272	산악휴양형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파로호I	3.523	수변휴양형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파로호II	0.875	수변휴양형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매운탕골	0.369	수변휴양형	춘천시 서면 오월리
옥석광산	0.168	산촌휴양형	춘천시 동면 월곡리
수타사계곡	1.529	산악휴양형	홍천군 동면 덕치리
밤벌	0.359	수변휴양형	홍천군 서면 모곡리
굴지리	0.343	수변휴양형	홍천군 북방면 굴지리
용화저수지	2.3	수변휴양형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직탕폭포	0.148	수변휴양형	철원군 동송읍 장흥3리, 갈말읍 상사리
월정역	0.383	생태,안보관광형	철원군 철원읍 내포리, 흥원리, 동송읍 중강리
화천은천	0.763	산악휴양형	화천군 하남면 삼화리
양구선찬장	0.262	산악휴양형	양구군 양구읍 석현리
후곡약수터	0.282	수변휴양형	양구군 동면 후곡리
남이섬	0.486	수변휴양형	춘천시 남산면 방하리
홍천스키장	9.156	산악휴양형	홍천군 서면 팔봉리
서천(강촌)	1.843	산악휴양형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

자료: 한국관광개발연구원, 97 한국관광연감, pp. 667-670, 논자제작성

## 2) 치악산권

치악산 관광권은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을 대상으로 하며 2,989.30km<sup>2</sup>이다. 치악산권은 원주, 간현, 고씨동굴, 치악산 등의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산악, 계곡관광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스키장 등 고원 휴양시설의 확충 및 자연경관 보전을 꾀하고 있다.

〈표 2-3〉 치악산관광권의 유형

지역	면적	유형	소재지
합계	29.448	-	-
간현	0.96	수변휴양형	원주시 지정면 간현,안창리
월송	15.963	산악휴양형	원주시 지정면 월송,판대리
고씨동굴	0.49	수변휴양형	영월군 하동면 진별리
영월은천	0.574	은천휴양형	영월군 영월읍 삼옥리
섬강	0.517	수변휴양형	횡성군 횡성읍 북천리,읍하리
태기산	0.25	산악휴양형	횡성군 청일면 신대리
어답산	1	산악,수변휴양형	횡성군 갑천면 병지방리
청태산	2.948	산악휴양형	횡성군 둔내면 두원리
홍호	0.8	수변휴양형	원주시 지정면 홍호리
월송	0.354	수변휴양형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칠봉	0.987	산악휴양형	원주시 호저면 산현, 용곡리
횡성호	0.73	수변휴양형	횡성군 갑천면 중금리
봉화산	1.682	산악휴양형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무릉계곡	0.834	산악휴양형	영월군 수주면 무릉리
도덕산	1.359	수변휴양형	영월군 서면 옹정리, 후탄리

자료: 한국관광개발연구원, 97 한국관광연감, pp. 674-676 논자 재작성

3) 설악산관광권

설악산관광권은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인제군(남면제외)을 대상으로 한다. 설악산권은 속초시(설악산) 금강산, 화진포 등의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산악, 고원 및 해양관광을 주로 한다.

〈표 2-4〉 설악산 관광권의 유형

지역	면적	유형	소재지
합계	13.929	-	-
화진포	3.347	해안휴양형	고성군 거진읍 화포리, 현내면 초도리, 죽정리
송지호	2.43	해안휴양형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삼포,문암	0.79	해안휴양형	고성군 중왕면 삼포, 문암, 송암리
속초해수욕장	0.349	해안휴양형	속초시 조양동, 대포동
오색	0.461	산악휴양형	양양군 서면 가라파리, 오색리
용대	0.347	산악휴양형	인제군 북면 용대1리
남애	0.98	해안휴양형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진부미시령	0.356	산악휴양형	인제군 용대3리
필레	0.299	산악휴양형	인제군 인제읍 귀둔리
원암	0.53	산악휴양형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봉포	0.406	해안휴양형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신평	2.285	산악휴양형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고성산	0.18	산악휴양형	고성군 간성읍 금수리
대진	0.06	해안휴양형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가진,공형진	0.353	해안휴양형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공형진리
고사	0.126	수변휴양형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합강리

자료: 한국관광개발연구원, 97 한국관광연감, pp. 680-682, 논자재작성



4) 강릉태백 관광권

강릉태백관광권은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정선군, 평창군, 홍천군 내면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총면적은 5,841.47km<sup>2</sup> 이다.

강릉 태백권은 강릉, 오대산, 무릉계곡, 화암약수 등의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체류형 관광지로서 휴양, 체육, 체류시설 확충과 장기 체류형 관광권으로 특화를 꾀하고 있다.

〈표 2-5〉 강릉 태백관광권의 유형

지역	면적	유형	소재지
합계	34.054	-	-
주문진해수욕장	0.528	해안휴양형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연곡해수욕장	0.176	해안휴양형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옥계해수욕장	0.216	해양휴양형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망상해수욕장	0.691	해안휴양형	동해시 망상동
무릉계곡	0.156	산악휴양형	동해시 삼화동
삼척해수욕장	0.374	해안휴양형	삼척시 중산동, 갈천동, 교동
맹방해수욕장	1.269	해안휴양형	삼척시 근덕면 상,하맹방리, 교가리, 덕산리
장호해수욕장	0.372	해안휴양형	삼척시 근덕면 장호, 용화리, 원덕읍 갈남리
초당	3.423	산악휴양형	삼척시 근덕면상, 하맹방리, 교가, 교곡리
화암	1.973	산악휴양형	정선군 동면 화암리
동명	0.168	해안 및 산악휴양형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백봉봉	1	산악휴양형	정선군 임계면 도전리,가목리, 직원리
용연	0.122	산악휴양형	태백시 화전동
용평	17.189	산악휴양형	평창군 도암면 용산리, 수하리
봉평	6.067	산악휴양형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 진조리
횡계	0.33	산악휴양형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자료: 한국관광개발연구원, 97 한국관광연감, pp. 686-688, 논자제작성

### III. 강원도 관광자원 현황과 개발의 문제점

#### 1 강원도 관광자원의 현황

##### 1) 자연관광자원

강원도의 관광지를 형태별로 보면 공원이 7개나 있으며, 그중 국립공원이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등 3곳이 있으며, 도립공원은 양양군의 낙산, 강릉의 경포, 태백의 태백산 등 3곳이 있으며, 군립공원은 인제의 아미산 1곳이 있다. 관광단지로는 원주 월송관광단지 1곳이 종합휴양지로서 역할을 한다<sup>3)</sup>.

강원도의 국민관광지로는 춘천권에는 춘천호반, 구곡폭포, 청평사 등 3곳이 있으며 홍천의 팔봉산, 철원의 고석정, 화천의 파로호가 있으며, 설악권에는 고성에 송지호, 삼포 문암, 화진포가 있고, 속초에 속초해수욕장, 양양에 오색이 있다. 강릉권에는 강릉에 옥계, 주문진, 연곡이 있으며, 동해에 무릉계곡, 망상이 있고 삼척에는 장호, 맹방, 삼척, 초당 등 4곳이 있으며, 태백권에는 영월에 고씨동굴, 정선에 화암이 있고, 치악권에는 원주에 간현 1곳이 있어 총 23개소가 있다.

강원도의 전적지구는 8개소가 있으며, 철원군의 김화지구, 화천군의 평화의 댐, 양구군의 직연폭포, 편치불, 두타연이 있고 인제군의 향로봉, 고성군의 화진포, 선봉사가 있다.

강원도의 운동휴양지구로는 춘천시가 남이섬 등 8개소, 원주시가 간현유원지 등 6개소 강릉시가 옥계해수욕장 등 3개소, 동해시가 무릉계곡 1개소, 속초시가 설악골프장 1개소, 삼척시가 초당, 장호해수욕장 등 2개소, 홍천군이 팔봉산 등 5개소, 횡성군이 하궁리, 두원지구 등 2개소, 영월군이 고씨동굴, 영월온천 등 2개소, 평창군이 용평스키장 등 4개소, 정선군이 화암약수 1개소, 철원군이 고석정 1개소, 화천군이 파로호, 광덕지구 등 2개소, 양구군이 석현지구 등 3개소, 인제군이 용대지구 진부 미시령 등 2개소, 고성군이 화진포 등 12개소, 양양군이 오색지구, 동호리 등 2개소가 있다. 강원도 전체 운동휴양지구는 57개소가 있다.

강원도의 유원지는 춘천이 위도 등 7개소, 강릉이 향호, 동해가 천곡, 망상 등 2개소, 태백이 연화산, 속초가 동명 등 3개소, 삼척이 삼척, 맹방 등 2개소, 횡성이 섬감, 영월이 청평포가 있으며 총 18개소가 있다.

강원도의 해수욕장은 시범해수욕장이 12개소, 일반해수욕장은 강릉시에 18개소가 있으며, 시범해수욕장은 강릉시에 결표 등 4개소, 동해시에 망상, 속초시에 속초, 삼척시에 삼척, 맹방 등 2개소, 고성에 송지호, 삼포 등 2곳, 양양에 낙산, 하조대 등 2개소가 있으며, 일반 해수욕장은 강릉에 안인 등 3개소, 동해에 노봉 등 3개소, 삼척에 작은후진 등 6개소, 고성에 백조, 화진포 등 2개소, 양양에 설악 등 4개소가 있다.

강원도의 비지정관광지는 총 132개소로 홍천, 춘천이 19개, 17개소로 가장 많고, 삼척, 양양, 고성이 가장 적게 분포되어 있다.

강원도 전체 관광지는 비지정관광지를 포함하여 276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중 39개 지역은 중복

3) 강원개발연구원, 강원포럼, 96, 5 p14

지정되어 있다.

〈표 3-1〉 강원도 자연관광자원 현황

구 분	국립 공원	도립 공원	군립 공원	관광 단지	국민 관광지	전적 지구	운동휴 양지구	유원지	해수 욕장	비지정 관광지
강원도	3	3	1	1	23	8	57	18	30	132
춘천시	-	-	-	-	3	-	8	7	-	17
원주시	1	-	-	-	1	1	6	-	-	8
강릉시	1	1	-	-	3	-	3	1	7	5
동해시	-	-	-	-	2	-	1	2	4	-
태백시	-	1	-	-	-	-	-	1	-	-
속초시	1	-	-	-	1	-	1	3	1	-
삼척시	-	-	-	-	4	-	2	2	8	4
홍천군	-	-	-	-	1	-	5	-	-	19
횡성군	-	-	-	-	-	-	2	1	-	9
영월군	-	-	-	-	1	-	2	1	1	11
평창군	(1)	-	-	-	-	-	4	-	-	8
정선군	-	-	-	-	1	-	1	-	-	13
철원군	-	-	-	-	1	1	1	-	-	11
화천군	-	-	-	-	1	1	2	-	-	8
양구군	-	-	-	-	-	3	3	-	-	5
인제군	(1)	-	1	-	-	1	2	-	-	7
고성군	-	-	-	-	3	2	12	-	4	3
양양군	(1)	1	-	-	1	-	2	-	6	4

자료: 강원개발 연구원 96. 5 강원포럼, pp 15-16

## 2) 인문관광자원

춘천시의 문화자원으로는 보물이 근화동 당간지주, 7층석탑, 청평사 회전분이 있으며, 민속자료는 청풍부원군 상여가 있다<sup>4)</sup>. 원주시의 문화자원으로는 국보 59호인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비, 보물 78호인 거둔사 원공국사 승묘탑비, 463호인 진공대사탑비, 464호인 흥법사지 3층석탑, 750호인 거둔사지 3층석탑, 사적으로는 168호인 거둔사지가 있고, 천연기념물은 성남리 성황림(93호), 반계리 은행나무(167호), 홍업면 느티나무(279호)가 있으며, 중요무형문화재로는 나전칠장(10호)이 있다. 강릉시의 문화자원으로는 국보 51호인 강릉객사문, 보물로는 한송사지석(84호), 물걸리석조 비노사형불좌상(542호), 물걸리불대좌(543호), 물걸리 3층석탑(545호), 물걸리불대좌 및 광배(544호), 수타사월인석보(745호) 등이 있다. 횡성군의 관광자원은 문화자원으로는 천연기념물인 압곡리 백로 및 왜가리번식지(248호)가 있다. 영월군의 문화자원으로는 보물인 홍영사 징호대사 보인탑비와 사적인 장릉이 있고, 천연기념물은 고씨굴 등 3개가 있다. 평창군의 문화자원으로는 고씨굴 등 3개가 있다. 평창군의 문화자원으로는 국보로는 상원사동종 등 3개가 있고, 보물로는 월정사석조보살좌상 등 3개가 있으며, 사적으로는 오대산 사고지가 있다. 민속자료로는 백견회장적고리가 있다. 정선군의 문화자원으로는 보물로서 정암사 수마노탑과 천연기념물이 2개, 중요민속자료로는 외제이서하 내외분 옷이 있다.

철원군의 문화자원으로 국보인 도피안사 철조비노사나불상, 보물로는 도피안사 3층석탑, 그리고 천연기념물로는 천통리 철새도래지가 있다. 화천군의 문화자원으로는 보물 496호인 계성리 석등이 있다. 양구군의 문화자원으로는 천연기념물로 개느삼 자생지(372호), 대암산, 대우산 천연보호지역(246호)이 있다. 인제군의 문화자원으로는 천연기념물 246호인 설악산 천연보호지역이 있다. 고성군 불좌상 등 14개가 있으며, 천연기념물로는 교항리 밤나무, 장덕리 은행나무, 삼천리 소나무가 있고, 민속자료로는 선교장이 있다.

태백시의 지방문화재로는 용연굴이 있으며, 그외 관광자원으로는 40여개가 있다. 속초시의 문화자원으로는 보물인 향성사지3층 석탑과, 천연기념물로는 설악동소나무가 있다. 삼척시의 문화자원으로는 보물 213호인 죽서루가 있고, 천연기념물이 도계긴잎느티나무 등 5개가 있으며, 지방문화재로는 저승굴 등 3개가 있다. 또한 중요민속자료로는 신리너와집 등 4곳이 있다.

홍천군의 문화자원은 보물이 희망리3층석탑(79호), 희망리 당간지주(80호), 쾌석리4사자3층석탑(540호), 물걸리석조여래좌상의 문화자원으로는 천연기념물인 향로봉, 건봉산천연보호지역(247호)과 민속자료인 어명기 가옥(131호)이 있다.

양양군의 문화자원으로는 국보인 진전사지3층석탑(122호), 선림원지3층석탑(444호), 선림원지석등(445호), 선림원지홍각선사탑비(446호), 선림원지부도(447호), 낙산사동종(479호), 오색리3층석탑(497호), 낙산사7층석탑(499호) 등 8개가 있다. 또한 천연기념물로는 포매리의 백로 및 왜가리 번식지(229호)가 있다.

강원도의 문화자원은 각 시군별로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보가 평창군이 3개로 많고, 보물은 강릉시가 14개, 홍천군이 9개이며, 천연기념물은 삼척시가 6개로 많고, 무형문화재는 강릉시에 2개 있으며, 민속자료는 삼척시가 4개로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도지정문화재중 유형문화재는 강릉시가 31개, 원주시가 16개, 기념물로

4) 강원개발연구원, 전세서. p. 16

는 강릉시가 14개, 춘천시가 11개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문화자원은 오대산을 중심으로 한 강릉시와 평창군이 가장 많고, 다음은 삼척시, 원주시순으로 나타났다.

〈표 3-2〉 강원도 인문관광자원 현황

구 분	국 가 지 정 문 화 재					도 지 정 문 화 재				
	국 보	보 물	사 적	천연 기념물	무형 문화재	민 속 자 료	유형 문 화재	무형 문 화재	기 념물	민 속 자 료
강원도	7	48	4	27	2	10	105	5	64	1
춘천시	-	3	-	-	-	1	4	-	11	-
원주시	1	4	1	3	-	-	16	1	3	-
강릉시	1	14	-	2	2	1	31	1	14	-
동해시	-	-	-	-	-	-	4	-	1	-
태백시	-	-	-	-	-	1	-	-	3	-
속초시	-	1	1	1	-	-	4	-	-	-
삼척시	-	1	-	6	-	4	7	1	7	1
홍천군	-	9	-	-	-	-	1	-	3	-
횡성군	-	-	-	-	1	-	9	1	-	-
영월군	-	1	1	3	-	-	8	-	5	-
평창군	3	3	1	1	-	-	6	1	3	-
정선군	-	1	-	2	-	1	3	1	3	-
철원군	1	1	-	1	-	-	1	-	3	-
화천군	-	1	-	-	-	-	1	-	1	-
양구군	-	-	-	2	-	-	-	-	1	-
인제군	-	1	-	3	-	-	1	-	2	-
고성군	-	-	-	1	-	1	1	-	2	-
양양군	1	8	-	1	-	-	8	-	3	-

자료: 강원개발연구원, 96.5 강원포럼, pp. 17-18

## 2 강원도 관광자원 개발의 문제점

### 1) 관광객 유치의 불안정성

강원도는 휴전선 145km를 북한과 접하고 있으며, 해안선이 212.3km에 달하여 국가안보상 중요한 위치에 있다. 북한과 인접하여 있기에 제약요인이 많으며, 북한과의 상황에 따라 관광객의 수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통일이후 강원도의 위치는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비하는 대응책이 미미하다. 이러한 상황은 도전체 면적의 82%가 산악지역으로 개발장애요인이 많아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3차산업의 비중이 타지역에 비해 높은(64.5%) 지역특성상 취약점이 되고 만다.

또한 전국민의 10.6%가 관광목적지로 강원도를 찾고 있어 경기(15.4%), 경북(13.3%), 경남(11.8%)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숙박관광목적지로는 전체의 24.5%를 차지하여 1위를 기록하고 있다(한국관광공사, 1997.186-188). 그러나 서울관광객의 39.0%, 인천관광객의 35.0%, 경기도 관광객의 33.3%가 숙박관광지로 강원도를 선택하고 있으나 그 외의 지역에서 강원도를 방문하는 비율은 10% 내외에 머물고 있다<sup>5)</sup>. 이는 강원도 관광객의 대부분이 수도권지역민에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며, 이는 시장이 한곳에 편중되어 안전성이 없음을 의미한다.

### 2) 연계성의 미비

강원도는 개발잠재력이 크지만 사회간접기반시설의 낙후로 대부분의 지역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sup>6)</sup>. 면적이 넓고(전국의 17.0%) 인구밀도가 낮아 주민 1인당 국토면적은 전국 1위이지만 도로포장율은 64.6%(전국평균 76.0%, 통계청, 1996.172)로 전국 15개 시도중 14번째이고 1인당 도로 연장은 46m 이다 이러한 열악한 도로수준과 지역내 교통망의 비체계성은 관광객 송출지와 강원도간 연계성과 도내 관광기간 연계성을 악화시켜 강원도로의 관광객 유치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강원도는 산과 해수욕장 등의 자연관광지로서만 알려져 있을 뿐 문화관광지로서의 인지도는 매우 낮다.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의 연계미비로 관광객의 체재일수가 짧으며, 이는 외래관광객 비율이 1%에 못미치는 주된 원인이 된다. 또한 자연자원 관광에의 집중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강원도는 5개의 국보(국보 제63호 도피안사 철조비로사나불좌상, 국보 제59호 법천사 지광국사 현모탑비, 국보 제122호 진전사지 3층석탑, 국보 제221호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 국보 제51호 강릉객사문)를 보유하고 있고, 강릉오죽헌(보물 제165호)등 상당한 보물과 사적, 고대리 지석묘 등 기념물이 있으며, 중요민속자료로 강릉 선교장, 삼척 신리 너와집, 삼척 대이리 굴피집, 삼척 대이리 통방아 등이 지정되어 있다. 타도에 비하여 지정문화재가 수적으로 적은 것은 사실이나 양질의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연관광자원과 연

5) 동 조사결과에 따르면 '96년도 국내숙박관광 경험자중 부산시의 7.5%, 대구시의 4.7%, 광주시의 10.9%, 대전시의 9.5%, 충북의 27.6%, 충남의 12.6%, 전북의 14.6%, 전남의 9.8%, 경북의 6.1%, 경남의 10.7%, 제주의 8.6%가 숙박관광여행 목적으로 강원도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한국관광공사, 전개서, p80

게시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 3) 환경보존과 개발의 마찰

강원도는 각종 토지이용규제와 환경규제로 군사시설보호지역, 상수원보전지역, 생태계보존지역 등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 적극적인 관광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 전체면적의 80%가 산지이고, 산림면적의 77%가 보전임지로 지정고시되어 있으며, 청정지역이 많아 수질환경보전법상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타도 보다 훨씬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강원도는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관광행정에서 탈피하여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에 4계절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시설의 입지계획을 반영시키고 민자를 유치하여 지역에서 원하는 방향의 관광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적극적인 관광행정을 펴나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민통선지역 등개발제한 지역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려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그리고 이들 지역을 제한지역으로 보존하려는 환경부와 환경단체, 군부대간에 끊임없는 마찰과 분쟁이 야기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 4) 상품성의 낮은 가치

<표3-3> 강원도의 관광소비액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총관광소비(억원)	2,089	2,255	2,120	4,225	4,211
1인당소비액(원)	10,543	10,112	9,654	13,070	11,201

자료: 강원도청, 97 강원통계연감 p 295, 논자 재작성

위의 <표3-3>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강원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1인당 소비액은 '94년 13,070원, '95년 11,201원으로 매우 낮다.

강원도의 관광소비액이 저조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① 강원도의 주 관광대상이 산과 바다로 관광자원의 소비유인력이 낮기 때문이다.
- ② 특산물이나 관광기념품 등의 수준이 낮아 살거리가 부족하다.
- ③ 유흥시설과 골프장 등 높은 지출을 유도하는 관광객 유치시설이 부족하다.
- ④ 휴양콘도 위주의 관광시설 개발로 관광객들이 생필품 등을 외지에서 가지고와 실제로는 지역경제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 5) 홍보 및 지역성의 부족

관광의 마케팅 전략은 관광이 생활의 한부분으로 자리 잡은 현실에 있어서 관광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 매우 필요한 것이다. 또한 오늘날과 같은 경쟁의 시대에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강원도의 경우 관광마케팅에 관한 실적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행정기관이 주축이 되어 몇가지의 「소개책자」가 발간 배포되는 것이 고작이며,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그것

조차도 구하기 힘들다.

최근에 이르러 소개책자를 다양화하고 멀티비전, 비디오테이프 등을 활용한 홍보, 선전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이것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민간부문이 나서야 하는 것인데, 강원도의 경우 강원도의 관광상품을 선전하고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Inbound)관광업체가 전문하다는 것은 강원도의 마케팅 및 홍보의 부재가 심각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지역성의 부족을 들 수 있는데 여기서 지역성이라 함은 두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나는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전통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강원도는 매우 만족스럽지 못하다. 지금까지의 관광개발이 중앙정부에 의해 주도되어 왔고, 외지에서 들어온 대기업 위주의 개발로 인해 관광수입이 지역소득의 창출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다.

전자의 경우, 그 동안의 법적, 제도적 여건과 국토의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어쩔수 없었던 일로 이해될수 있다고 하더라도, 후자의 문제점은 앞으로의 관광개발에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할 부분이다. 지역주민의 여건상 직접투자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호텔이 또는 그 레저시설이 지역주민의 생활에 보탬이 되는 사업체라는 인식이 주민에게 확산될 때 비로서 관광개발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 6) 자원활용 노력의 부족

강원도는 대표적 관광지인 설악산과 속초, 강릉, 주문진 등 해변 뿐 아니라 인제, 양구, 철원 등 북부접경 지대에 철새도래지, 고산식물자생지, 야생동식물 서식지 등 다양한 생태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안보관광지로서의 잠재성도 매우 크다. 하지만 이들 자원들에 대한 인식 및 홍보부족으로 아직까지 강원도는 산악관광, 해변관광지로서만 인지되고 있다.

최근들어 자연자원과 문화자원, 안보자원, 종합리조트 등을 연계한 복합관광상품화가 활성화 추세에 있으나 아직까지 미흡하다.

앞에서 살표본 것과 같이 강원도는 국내인들에게는 제1의 관광지이나 외래객의 비율은 매우 적다. 이는 강원도의 관광자원이 대부분 자연자원에 국한되어 있고 숙박시설 및 음식점 등 각종 편의시설이 국내인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외국인들의 이용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 그 원인이 된다. 또한 자연경관 감상 이외에 자연을 이용한 스포츠 관광이나 각종 체험형 관광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관광객 체재일수 연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지적될 수 있다

## IV. 강원도 관광자원 개발의 개선 방안

### 1. 개선을 위한 기본 방안



1)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

관광행동이 다양해짐에 따라 관광대상물의 범위도 무한히 확대되어 가고 있다. 기후, 풍토, 환경, 풍속도 뿐만 아니라 분위기와 친절성도 관광욕구를 충족시켜 줄 훌륭한 관광자원이 되고 있다. 성공적인 관광산업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편리한 교통수단과 숙박시설, 다기능화한 유형의 시설 및 개발로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이다. 또한 특유한 멋을 가미한 지적이고 창조적인 상품과 세련된 마케팅뿐만 아니라 무형의 분위기와 친절성으로 이미지 극대화를 이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서비스종사원은 싫든 좋든 자신이 지역의 대표자라는 주체성을 인식해야 한다. 관광객이 관광지에서 사람과 접촉하는 것은 실제로 택시운전사,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의 종사원, 기념품점의 판매원 등 대부분 서비스종사자 들이다. 그의接客태도 하나로 “어느 관광지는 형편없다” 는 평가를 받게된다.

그러므로 모든 관광종사원 서비스 교육은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관광관련학과 또는 관련협회에서 교육을 통하여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

또한 지역주민에게도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와 자신의 친절이 관광객 유치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식시켜야 한다.

2) 주요 도시에 관광홍보팀의 파견

미국의 관광진흥을 담당하고 있는 제1의 정부기관인 미상무성 산하의 관광국(USTTA)은 전통적으로 높은 관광시장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나라의 중심도시에 해외 현지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회의 유치에 위해서 국제회의국은 본부를 파리에 두고 관촉활동을 펼치고 있다. 강원도도 서울 등 주요 도시에 관광홍보팀을 구성하고 현지사무소를 개설하여 현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강원관광의 동기를 부여하고, 강원도가 다른 어떤 관광지보다 매력적인 관광지라는 것을 관광객들에게 직접 인식시키는 활동을 전개하여 강원관광상품의 판매를 촉진시켜야만 할 것이다.

3) 항공교통의 국제화

1995년도 강원도를 찾아온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도에 비해 27%나 감소하였다. 강원도를 찾아온 외국인 관광객 중 62.9%가 용평리조트와 경포도립공원을 포함하고 있는 강릉권을 찾고 있다. 그러나 영동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를 비롯한 영동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비좁고 굽은 2차선 도로교통망은 적정통행량을 초과한지 오래되었으며, 이 적정통행량 중에는 절반가량의 화물차가 운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도로교통망을 늘 화물차와 뒤엉켜 산업도로나 관광도로나 그 어느 것으로도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용평리조트나 경포도립공원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총 입국교포 관광객 31만명중 60%가 일본교포이고,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총 71만명의 교포중 37%가 오사카에 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오사카와 강릉간의 국제정기노선의 개설을 서둘러야 한다고 본다.

오사카 국제공항은 나리타, 홍콩, 김포공항에 이어 아시아의 새로운 허브(Hub) 7)공항으로 등장하고 있다.

7) Hub 활동의 중심지

많은 건설기간이 소요되고 용지수용문제까지 안고 있는 도로교통망 확충만 무작정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늘은 용지수용비도 안들고 도로 건설비도 필요없고, 초고속도로이기 때문에 강릉 공항을 거점으로 하여 찾아온 외국인 관광객의 이동은 영동남부와 영동북부 지역의 수려한 해안선을 따라 어디라도 1시간 내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지금의 국제공항으로 부터 연결교통이 불편하여 찾아 오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의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강릉공항의 항공운송부문을 대폭 개선하여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렇게 된다면 낙후된 도로교통망을 보완하면서 관련된 여러 관광산업들이 활기를 되찾아 우리나라 관광수입의 흑자로의 반전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된다.

## 2. 상품성 제고를 위한 방안

### 1) 관광코스의 권역별 상품화

관광객의 유치를 꾀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관광대상이 되는 자원과 소재를 잘 정비해 나가는 것이다. 특히 각 자원 및 소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관광객의 주된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교통노선등의 관광루트를 정비하고 여행할 때 매력을 느끼며 참고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관광코스가 작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에서 권역별로 관광코스를 제시해 보면,

첫째, 설악권의 관광루트는 설악산→낙산→오색→용소폭포→한계령→백담사→알프스리조트→진부령→화진포→송지호→통일전망대→삼포,문암→신평→영랑호→속초항→7번국도를 이용한 강릉권 방향이나 설악산→미시령→백담사→한계령→용소폭포→오색→낙산→속초해수욕장및 속초항→영랑호→신평→화암사→송지호→삼포,문암→화진포→통일전망대→진부령→알프스리조트→46번국도→31번 국도로 연결할수 있다.

둘째, 관광루트는 경포도립공원→송정축음기박물관→용지각→수문리당간지주→객사문→한송사지석불좌상→칠사당→신복사지와 석불좌상→용평리조트→오대산→진고개→소금강→오죽헌→선교장→경포대→강릉지구전적비→해운정→7번국도 설악권 방향이나 객사문→한송사지석불좌상→칠사당→신복사지와 석불좌상→수문리당간지주→용지각→송정축음기박물관→경포도립공원→해운정→경포대→강릉지구전적비→선교장→오죽헌→소금강→진고개→오대산→용평리조트→31번국도→44번 및 46번 국도를 이용 설악권방향으로 연계할수 있다.

셋째, 태백권의 관광루트는 강릉→등명락가사→망상→무릉계곡→죽서루→맹방,초당저수지→신리너와집민속유물→황지연못→태백산도립공원→정암사→화암약수→정선 아우라지→진부→오대산국립공원→용평리조트→강릉이나 오대산국립공원→31번국도→44번 및 46번국도→설악권방향으로 연계할수 있다.

위에서 제시해 보았듯이 문화관광요소를 비롯한 각종 이벤트등과 탄력적으로 연계하는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셔틀버스를 제공하고 운행함으로써 2차적 관광수입을 극대화한다.

2) 지역축제 및 행사의 관광상품화

비수기를 타개하기 위한 관광수요를 증진시킬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지역에 뿌리내린 각종 축제 및 행사를 활성화시켜 관광상품화함으로써 관광수입을 비수기와 성수기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유지할수 있을 것이다. 각 관광권별로 관광상품화할수 있는 주요 축제 및 행사를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춘천권 → 소양제, 한서문화제, 태풍문화제, 태봉문화제, 용화축전, 양록제, 국제마임축제, 국제인형극제 막국수축제 등
- \*원주권 → 치악문화제, 단종제 등
- \*설악권 → 설악제, 현산문화제, 수성문화제, 각종 음악제 및 미술제, 국제산악마라톤대회, 연어축제 등
- \* 강릉,태백권 → 단오제, 울곡제, 영동종합예술제, 노성대축제, 가산추모문화제, 각종 음악제,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발왕산 국제산악챌린지대회, 대관령 눈꽃축제, 정선아리랑제, 죽서문화제, 무릉제, 태백제, 철쭉제 등

위에서 같이 새로운 요소의 관광자원을 발굴하는 동시에 강원도의 산이나 물, 그리고 바다와 설원의 특색을 띠고 매력구축을 꾀한다. 또한 보도매체를 통하여 선전 및 홍보를 하고 가격할인이나 선물등 부가적 조건을 정비한다. 예를 들어 겨울철 비수기에 강릉, 동해, 삼척은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에 비해 겨울철 평균기온이 안정적으로 높고, 물맑고 쾌적한 지역이면서 일출광경과 바다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장점을 부각하여 전천후 스포츠 훈련장 및 행사 개최지로서 개발하고, 홍보를 극대화한다면 비수기의 좋은 관광상품으로 각광 받을수 있을 것이다.

3) 향토음식의 관광상품화

이미 외국에서는 미식관광이 보편화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는 어느 곳에 무엇을 먹으로 가는 것을 목적으로 여행하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즐기려는 경우가 많아져 좋은 것을 저렴하게제공하는 향토음식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음식물을 만들어 관광상품화함으로써 음식문화가 곧 그 나라와 지방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강원도의 맑은 공기와 산수에서 채취된 양질의 식재료를 이용하여 전래 향토음식을 계승 발전시키고 새로운 향토요리를 개발하여 관광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강원도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다시 찾는 관광지로의 특색과 상징을 드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향토음식을 관광객의 기호에 맞도록 개선하여 보급을 확대시키고 지역의 이미지로서 정착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이 대표적인 음식들을 분류하여 제시해 볼 수 있다.

- \* 주식류 → 감자밥, 차수수밥, 메밀막국수, 감자옹심, 강냉이밥, 팔국수, 감자수제비, 강냉이범벅, 감자범벅, 어죽, 닭갈비, 칩국수, 순두부백반, 산채백반, 쌀밥등
- \* 부식류 → 쏘가리탕, 더덕구이, 오징어순대, 메밀묵, 감자부침, 도토리묵, 더덕생채, 오징어회,

동태순대, 오징어불고기, 동태구이, 명란젓, 창란젓, 송이볶음 등

\* 병과류 → 감자송편, 감자지짐, 메밀총떡, 감자경단, 찹옥수수, 시루떡, 평창옥수수엿, 약과, 송화다식, 사천과즐, 메밀전병등

\* 음료수 → 오미자화채, 당귀차, 당냉이차, 칩차, 황기차, 당귀차, 천궁차 등

\* 장 류 → 옹기독쌈장, 옹기독청국장, 재래식막장, 재래식고추장 등

향토음식 관련축제를 살펴보면 춘천시의 막국수 축제, 원주시의 치악산 찹옥수수 축제, 평창군의 강원 감자 큰잔치, 양구군의 뽕잎 막국수 축제, 양양군의 양양송이 축제와 남대천 연어잔치, 인제군의 빙어 대축제가 있다.

관광객들의 취향이 다변화되면서 수요의 다양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단순한 경치관람에서 벗어나 향토음식의 시식, 특산물 구입 등 관광활동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각 지역에서는 지역특색과 관련된 향토음식을 역사적 학문적으로 연구,보존,개발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각 지방문화를 널리 알리는 역할도 겸해야 한다.

## V. 결론

우리는 IMF 시대라는 매우 어려운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음을 누구나 현실로 받아들이며 힘에 겨워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시절에 우리는 보다 용기를 갖고 힘있게 생활할수 있는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만족한 관광은 사람을 정신적, 심리적, 육체적으로 안정감있게 만들고, 활력을 불러와 재도약 할수 있는 힘을 갖게 한다.

이렇듯 관광이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더 없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매체인 것이다.

우리 속담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이 있다. 이는 관광이란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으면 즐기기 힘들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국민 소득이 1만불 시대가 도래하며 급속히 팽창하던 관광과 외식시장이 IMF가 찾아오면서 매우 위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잠시 위축되어 있을 뿐이지 관광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는 크게 잠재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슬기롭게 이겨낸다면 잠재된 관광의 욕구는 엄청난 힘으로 분출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내일에 대비하여 관광에 대한 투자 및 자원의 개발, 보존에 힘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본 연구에서는 내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강원도권의 관광자원과 개발에 대하여 재정비해 보고자 노력해 보았으나, 이론적인 한계와 방향제시에 있어 많은 부족함을 느낀다.

앞으로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만족과 불만족을 측정하고 수치화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강원도 관광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 국내문헌

1. 강원도, 지표로 본 강원도세, 1996.
2. 강원통계연보, 강원출판사, 1997.
3. 강원도청, 97업무계획
4. 강원도청 관광기획과, 96 관광동향 분석, 1997.
5. 강원개발연구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세미나, 1996.7.  
    , 지역별 자원실태 및 성장잠재력분석, 1996.  
    , 강원포럼, 1996, 5.
6. 김대경, 관광자원개발론, 문지사, 1997.
7. 김충호, 호텔경영학, 형설출판사, 1990.
8. 김홍운, 한국관광지리, 형설출판사, 1998.
9. 문화체육부, 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1995.
10. 박정식·신동영, 경영분석, 다산출판사, 1995
11. 오정환, 관광학원론, 기문사, 1996.
12. 윤대순, 관광경영학원론, 백산출판사, 1998.  
    , 여행사경영론, 기문사, 1992.  
    , 관광마케팅, 기문사, 1992.
13. 이근, 신관광자원론, 학문사, 1996.
14. 이선희, 관광마케팅론, 대왕사, 1993.
15. 이장춘, 관광자원론, 대왕사, 1993.
16. 이항구, 관광학서설, 백산출판사, 1995.
17. 채서묵, 관광사업개론, 백산출판사, 1997.
18. 한국관광개발연구원, 한국관광년감, 1997.
19. 한국관광공사, 지방관광활성화협력방안, 1997.
20. 한병선, 문화관광지리학, 삼광출판사, 1997.

### 외국문헌

1. Bhatia, A.K, Tourism Development: Principles and practices, New Delhi; Sterling publishers pvt, LTD, 1983.
2. Bonett, Jeremy, Implications of Marketing and Promotion for the development of Tourism, Tourism

Management, Vol. 3, No4, 1982.

3. Jefferson, M. and L. Lickorish, Marketing Tourism: A Practical Guide, Longman Group U.K Limited, 1988.
4. Middleton, V.T.C., Marketing in Travel & Tourism, Heinemann Professional publishing, 1988.
5. Mill, Robert Christie, Alastair M. Morrison, The Tourism System, Prentice Hall Inc., 1985
6. Smith, J. & Stephen, L., Defining tourism : A supply side view,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15 . 1988.

## ABSTRACT

### A Study on the Plans for Improvement of Development Tourism Resource in KangWon-D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velopment of tourism resource in KangWon-Do and the plans for improvements.

This research is organized into five sections.

Section I, introduces its objectives scope.

Section II, provides the theory of tourism in KangWon-Do.

Section III, analyzed the actual state of resource and problems of tourism development in KangWon-Do.

Section IV, the plans for improvements of development tourism in KangWon-Do.

Section V, describes the conclusion of this thesis.

The result show that it is very impartment to review and understand many kinds of problems which development of tourism resource in KangWon-Do and the plans for improvements.

강원도 관광자원 개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